



**김영일 군산시의장, 아름다운가게 10주년 참석**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지난 31일 아름다운가게 나운점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아름다운가게는 우리사회의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의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대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특히 아름다운가게 나운점은 10년 전 임직원 모두 한 마음으로 시작해 어느새 10번째 생일을 맞게 되었다. 김영일 의장은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 메시지와 함께 직접 판매를 나서고 상품도 구매하는 등 생활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일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의회도 이웃돕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참여 나눔 복지가 활발해지도록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관근 기자



**리명순 고창소방서장, 추석 전통시장 현장 방문**

리명순 고창소방서장은 지난 30일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고창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지도도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재 예방 강화 방안과 시장 상인의 자율적인 화재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가장 먼저 고창전통시장 상인회(회장 성인아)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리명순 소방서장은 고창전통시장을 둘러보며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추석 연휴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방법을 공유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공직자도 한복입기 적극 나서**

남원시가 한복문화도시 남원의 면모를 다양하게 알리기 위해 31일 개최된 소통행정 보고회에 최경식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이는 시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인 점을 활용, 이날 한복생활의 일상화를 위해 매마수 '한복이 좋은 날' 캠페인의 일환으로 회의를 마련한 것으로,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해 온 남원시는 그간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채로운 노력을 펼쳐왔다. 앞서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복진흥센터)이 선정한 한복문화 지역거점 도시로서 2년 연속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개최, 남원민의 특별한 한복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고향집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

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는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등을 일컫는다. 주요 내용은 △전판만, 버스정보시스템(BBS) 등 영상매체 통한 대국민 홍보 SNS 채널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콘텐츠 게시 △인문 및 방송매체 홍보 등이다. 강동일 서장은 "이번 추석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고향 집에 안전을 선물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추석 연휴를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창업발명경진대회 최우수·특별상 수상**

**고창 대산초, 지난해 대상에 이어 올해 수상 쾌거**

고창에 위치한 대산초등학교(교장 송미정)는 지난해 본교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창업발명경진대회에서 올해에도 최우수상(노을하 지도교사 조혜지), 특별상(김승준 지도교사 이상관)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소규모 초등학교인 본교가 4년 연속 전국대회 각종 창의융합 인재양성 분야 도전해, 교육환경이 우수한 대도시 학교들을 제치며 대산초등학교가 대한민국의 대도시 인재양성의 중심 학교라는 것을 굳건히 하였다. 올해 15회째인 전국창업발명경진대회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과학발명 및 창업 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개발하고 도전 정신을 함양시키는 물론, 청소년 창업을 활성화하여 지식 경쟁력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경기도교육청 등이 후원 및 주최하는 대회로, 시상식은 오는 9월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노을하(4학년) 학생이 금년에도 '발발브와 체크캡'을 이용한 안전한 포트'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전국 본선 참가학생 중에 유일한 초등학교 1학년인 본교 김승준 학생이 특정요류를 줄여주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방인자'로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한다. 이외에도 대산초등학교는 올해에만 대한민국녹색성장발명전 금상(3개) 동상(2개), 대한민국발명전시회 동상(1개),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1개) 은상(1개) 동상(5개)을 수상하며 4년 연속, 대한민국 모든 학교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농촌 소규모 학교가 대도시 학교들을 제치고 전국대회에서 매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게 된 데에는 미래형 과학교실 지원사업으로 최첨단 교육장비를 구비하고 목업작업이 가능한 교육환경조성에 더불어, 본교 시설관리를 담당하시는 맥기아빠 이상수 선생님의 재능과 노력이 맞물려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민주평통 임실, 20기 지역대표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회장 김태진)가 지난 31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심 민 임실군수,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대표(지방의원) 자문위원 및 협의회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기 지역대표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 자문위원'으로서의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지난 7월 1일자로 제20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지역대표(지방의원) 자문위원 8명(군의원 8명)에게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대행기관장인 심 민 군수가 위촉장을 전수했다. 심 민 군수는 "제20기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되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새롭고 활기찬 민선 8기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며 "최근 대내외적으로 국제정세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민주평통을 중심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평화통일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고 범민족적 의지를 결집해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진 회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늘 민주평통 제20기 지역대표로 위촉장을 받으시는 자문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자문위원들께서 민주평통이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교두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 장학금 100만원 기탁**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가 지난 31일 왕궁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장학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돼 왕궁면에 거주하는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가정 대학생 1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안진영 입주기업협의회장(CNC커피(주) 대표)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대학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수훈 면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높은 학생에게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소득가정의 대학생이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는 2018년 초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준공기업 65개사 회원을 두고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금,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지역 내 마스크 및 가공식품 지원 등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페이퍼코리아, 추석명절 이웃사랑 상품기탁**

매년 명절이면 군산시 저소득 세대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업이 있어,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을 대표하는 항토기업 페이퍼코리아(주)(대표이사 권육상)가 31일,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올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kg 400포(1,000원 상당)를 기탁했다. 기탁사에 참석한 페이퍼코리아(주) 권육상 대표이사는 "전달된 상품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일준 군산시장장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페이퍼코리아(주)의 소중한 마음에 감사하며, 우리 시에서도 골고루 누리는 행복 도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탁된 상품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전주대,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 선언**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센터장 한동승)는 최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민간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 등 57개 기관과 함께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 국주영은 도의회의장, 서거석 교육감, 전라북도 14개 시장 및 군수, 대학총장, 공공기관장, 민간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선정된 실행 의제는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 도시 만들기 △폐목재 활용 교육용 교보재 제작 △전북 유학생 플랫폼 구축 및 생생 프로젝트 등 13건이다. 실행 의제는 지난 한 달 동안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문제를 공모해 접수된 제안 총 94건 중 지역성, 시의성, 도민체감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한동승 센터장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누고, 혁신의 가치를 모으는다면 지역은 변화할 수 있다"며,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 추석맞이 민·관합동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익산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시는 9월 2일까지 공무원과 읍면동 주민단체 등이 민·관 합동으로 참여해 관광지, 주요 도로, 공한지, 다중이용시설 주변 집중 청소 등 취약지역 정화 활동을 실시한다. 익산시청 300여명의 공무원이 미륵사지, 생태공원 등 주요 관광지 17개소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 중이다. 29개 읍면동에서는 연일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50여개 단체와 함께 청소 취약지역 대청소에 나서고 있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업체와 함께 특별 청소를 구성해 익산IC·팔봉로, 금마·왕궁유역지, 시내 주요 도로 등의 가로 청소 정비를 추진한다. 한편 시는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휴 기간 민원·기동청소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쓰레기 수거 체



계 구축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국토대청결운동에 솔선수범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순창경찰, 시산초 방문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순창경찰서(서장 김남영)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31일, 순창생지면 시산초등학교를 방문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학교폭력예방 교육은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성범죄·사이버폭력 등의 교육을 중점으로 진행됐고, 자주 발생하는 사건중심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117신고 방법 등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줌으로써 학생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남영 경찰서장은 "학생들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에 선제적 대응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일동, 발전기금 기부**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일동은 지난날 31일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기금은 2022년 보건관리학과 개설 10주년을 기념하면서, 2022년 2학기부터 향후 10년간 3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발전기금은 본과 학생들의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교내·외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된다. 정지나 학과장을 포함한 이종우, 장선일, 주미현, 김삼미 등 5명의 교수는 "우리 학생들이 21세기 건강증진을 최일선에서 담당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진태 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발전기금을 기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